

# 공부 잘하는 학생 몰린 외고·국제고... 학력격차 '심각'

고교 유형별 신입생 내신성적 분석 상위 10%, 일반고 학생보다 5배 ↑ 어학, 영재교육 분야인가 고민해야

고교 유형별 학력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와 국제고 입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은 일반고 신입생보다 최대 5.2배나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고교 유형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학교는 서울소재 일반고 204개교, 자립형사립고(자사고) 23개교, 외고·국제고 7개교였다.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들었던 고교 신입생 비율은 학교 유형별로 외고·국제고 신입생이 44.4%로 가장 높았고, 자사고 18.5%, 일반고 8.5%였다. 외고·국제고 신입생 중 학력 우수 학생이 일반고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았고, 자사고도 일반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김해영 의원은 "분석 결과 고교서열화

〈서울지역 일반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

/김해영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입생 내신성적 백분율 (%)										계
	10% ↓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일반고 (204개교)	8.5%	9.8%	10.3%	10.7%	10.9%	10.5%	10.5%	10.4%	9.7%	8.7%	100%
일반고 누적비율	8.5%	18.2%	28.5%	29.2%	50.1%	60.6%	71.1%	81.6%	91.3%	100%	
자사고 (23개교)	18.5%	17.8%	16.0%	11.7%	10.2%	7.6%	6.2%	4.1%	3.5%	4.3%	100%
자사고 누적비율	18.5%	36.3%	52.4%	64.1%	74.3%	81.9%	88.1%	92.2%	95.7%	100%	
외고·국제고 (7개교)	44.4%	24.9%	13.2%	6.4%	4.9%	2.4%	1.2%	1.3%	0.8%	0.3%	100%
외고·국제고 누적비율	44.4%	69.4%	82.6%	89.1%	94.0%	96.3%	97.6%	98.9%	99.7%	100%	



로 인한 상위권 학생들의 외고·국제고 선호현상과 학생 우선선발권으로 인한 특혜가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서울소재 자사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추첨과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성적 우수학생들의 자사고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조사결과와 드러난 문제점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중학교 성적 우수자 선점 ▲일반고와 구조적 학력격차 조래 ▲고교서열화 ▲고입의 과도한 경쟁 ▲사교육 유발 등과 이로 인한 ▲교육불평등 심화를 꼽았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는 2018학년도

까지 전기고로 일반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뽑았으나,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후기고로 일반고와 동시 선발로 전환됐다. 이에 반발해 작년 2월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은 학생 선발 시기 일원화가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는 올해 3월 이전 나올 전망이다.

서울소재 22개 광역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 1개교 제외)의 경우 2014학년도까지 중학교 성적 50%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다가 2015학년도부터 성적에 상관없이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

게 되면서 1단계 정원의 1.5배수 추첨, 2단계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외고·국제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로 구분돼 학교운영과 학생 우선선발권 등 일반고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다"며 "하지만 어학이 더 이상 영재교육 분야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애초 설립 목적은 희미해졌고, 대입 결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학교가 되어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14~2018년 외고 졸업생의 어문 계열 진학률' (김해영 의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의

고 출신 학생 3명 중 1명 정도만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했고, '수능에서 전공어 대신 아랍어를 선택한 외고생 비중 추이' (김한표 의원)를 보면, 2015년 3.48%에서 2018년 22.23%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사고·특목고의 우수 학생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입 선발시기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입은 선발시기 뿐 아니라 불공정한 선발방법도 문제이므로, 고입 동시 실시와 성적 중심의 선발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는 '선지원-후추첨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야전형 집행부로 생존 한계 극복”

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이율 변호사

오는 28일 치러지는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의 주요 공약은 '변호사 생존권 확보'다.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친 이율 변호사(사시 35회)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변호사와 포화된 법률시장 극복을 위해 '야전형 집행부'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로스쿨 통합으로 신규 변호사 수를 줄이고, 법률시장을 잠식한 법률구조공단을 법원 국선제도와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변호사 수를 유지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한 법률구조공단 개혁도 이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

"변호사들이 생존의 한계에 내몰린 지 오래다. 과다하게 배출되는 변호사들, 갈수록 좁아지는 수입 시장, 유사지역의 지속적인 지역침탈. 여기에 악성 의뢰인들에게 대책없이 당하고, 법원·검찰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도대체 무얼 했나. 기껏해야 서명운동, 성명서 발표, 보여주기식 1회성 시위나 하고. 이런 쇼만 하는 회장이 제대로 된 회장인가. 서울변회는 본질적으로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서울변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말로만 지역 수호를 외치고 자리만 차지하는 '관리형 집행부'가 아닌,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야전형 집행부'가 절실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폐지와 국선변호수당 증액을 내걸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은 문명국가의 임무다. 그러나 법률시장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다. 국가가 '변호사-의뢰인'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 제대로 된 변호활동이 될 리 없다. 국선변호 관리권을 변호사 단체로 이관해야 한다. 그 과도기적 조치로 국선변호 수당을 1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세워진 1987년 당시는 국내 변호사 수가 2000명도 안 됐다. 국가의 법률구조가 필요했다.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변호사 100명이 소속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1년에 처리한 사건 수가 16만 3993건이다. 구조공단 변호사(공익법무관 포함) 1인당 연간 720건, 월 60건씩 사건을 수임했다. 이 정도면 변호사 재벌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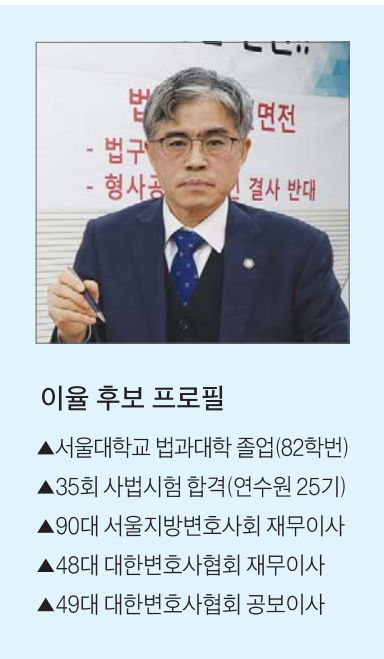
반면 서초동 개업변호사는 한 달에 한 건을 수임하기 힘들다. 그리고 법률구조 대상자의 월 소득이 558만4000원이다. 서초동 고용변호사보다 수입이 높다.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된 구조공단이 지금은 법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나는 공단과 법원 국선제도를 통합해 별도의 '국가법률 구조사업 기구'를 만들고 제안한다."

-의무적인 공익활동에 반대하고 있다. 취지가 궁금하다.

"변호사 공익활동은 장려해야 한다. 묵묵히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칭찬하고 상을 줘야 한다. 그런데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다.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공익활동 의무를 지우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자발적으로 해야 할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행



이율 후보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82학번)
- ▲35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5기)
- ▲90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재무이사
- ▲48대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 ▲49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다. 현행 변호사 공익활동을 '의무부과-불이행시 불이익 처분' 구조에서 '장려-이행시 이익 제공'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연간 배출 변호사 숫자는 1000명 정도가 적당하다. 로스쿨을 통합해 해야 한다. 입학 정원을 1500명 정도로 줄이고, 배출 변호사 숫자를 1000명 정도로 정하면 좋겠다."

-변호사 업계가 한동안 사시준폐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됐다.

"사법시험은 이미 폐지됐다. 이제는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외부의 위기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나를 로스쿨 반대론자로 분류하고 진영논리 프레임에 씌우려 한다. 내 아들이 변호사 시험 7회 출신 군법무관이다. 선거캠프에도 로스쿨 변호사님들이 많다. 이번 선거가 변호사 업계의 미래에 관한 정책대결로 치러지기를 바란다."

/이법중 기자 joker@

## 일하고 싶은 알바는? 스타벅스>올리브영>정관장

성인남녀가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브랜드 1위에 스타벅스가 꼽혔다. 아르바이트 브랜드를 선택하는 기준은 높은 급여보다는 선호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성인남녀 9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응답자의 73%가 '그렇다'고 답했다.

4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기로 제시하고 '가장 일하고 싶은 브랜드' 한 곳을 선택하게 한 결과, 스타벅스(43.3%)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CJ올리브영(5.5%), 정관장(4.5%), 이디야(4.3%), GS25(3.1%), 다이소·빠리바게뜨(각 2.9%), 베스킨라빈스(2.5%), 서브웨이(2.3%), CU(2.1%) 순으로 10위권에 들었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스타벅스는 남성(38.9%)보다는 여성(46.8%) 선호도가 더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30대(49.3%)에서 특히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용수 기자

## 아주자동차대학

### 뉴질랜드 취업 졸업생 위해 '찾아가는 졸업식'

아주자동차대학은 성락훈 국제교류센터장 일행이 지난 5일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방문해 현지 자동차정비회사에 취업한 졸업생들과 '찾아가는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해의 졸업식에는 뉴질랜드 해의 현장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현지 자동차정비회사에 취업한 졸업생과 이미 취업해 워크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 대학 선배들도 함께 참석해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해의 졸업식을 주관한 성락훈 국제교류센터장은 "뉴질랜드 자동차 정비회사에 취업한 졸업생들의 실력과 성실함이 알려지면서 채용을 원하는 현지 회사 문의가 늘고 있다"며 "국내 취업이 어려워



아주자동차대학 성락훈 국제교류센터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뉴질랜드 현지 자동차정비회사에 취업한 졸업생들이 지난 5일 현지에서 졸업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자동차대학

고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자동차대학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취업하고 이후 영주권까지 취득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